

# 북한 모르고 출판시장 어떻게 만나겠는가?

전 조선 작가연맹소속 시인이 들려주는 북한문학·북한출판  
'교정·교열 깐깐하다 소리 들어도 실수는 용납 못한다'



“북한 사회와 그곳 실정도 제대로 모르고 출판교류를 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국경을 세 번 건넌 여자 최진이》로 북한사회 현실과 탈북과정을 실타래처럼 풀어썼던 최진이(탈북자, 시인) 씨의 남한 출판문화에 대한 충고다. 남한에서 처녀작을 펴낸 이유가 “북한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알리는 것”이었던만큼 가공하지 않은 ‘날것’의 북한 실상을 소개하는 데엔 누구보다 열정에 가득 찬 최씨다.

출판사 문학동네의 자회사 북하우스를 통해 남한에서 처녀작을 출간한 그는 “편집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말로 운을 뗐다. 최씨 표현을 빌리면 결과적으로 물고기가 제 물에 들어간 것과 같았다.

“크게 다를 건 없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북한 출판 시스템에선 심의 절차가 더 들어 있고, 작가들이 편집자 이상으로 꼼꼼하게 원고를 검토하는 게 일반화돼 있습니다. 작가들은 마지막 인쇄 ‘계라’ 지(마지막 교정용 원고)까지 손수 보면서 오·탈자를 잡아내죠. 깐깐하다는 평을 들을지언정 실수는 용납이 안 됩니다.”

## 북한, 작가 양성체계 탄탄…홍석중의 《높새바람》 등 엄청난 반향

넓은 의미에서 최씨가 지적하는 북한과 남한 출판의 차이는 작가양성과정에서부터 두드러진다. 북한에는 ‘전국문학통신원 양성체계’에서 발굴된 문학신인들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각 도별로 1년에 한 달씩 문학통신원강습을 조직하되, 글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도 작가동맹에서는 이 기간에 실력 있는 작가들을 지도교수로 보내 작품 완성을 돕도록 한다. 이때 배급과 노임은 국가가 지불한다.

북한에선 글 쓰는 문화가 대중화돼 있다. 김정일이 문학을 대중선진정책의 중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당의 정책, 지시들을 작품화해 매체에 발표하는 체계를 수립해 놓은 탓이다. 1980년대에 들어와 북한 중앙사로청위원회에서는 김정일의 생일인 2월 16일이면 각 학교, 대학, 기관 기업소, 농장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 창작경연 행사를 준비하도록 했다. 청년들은 이 시기만큼은 무조건 시를 ‘꼬적거려야’ 한다. 학교나 대학, 기관, 기업소별로 ‘조직별 충성의 시집’을 창작해 김정일에게 올리는 게 붓을 이루곤 한다. 최씨는 이것이 “문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문학을 북한인민들에게 낯설지 않은 매체로 인식되게 했다”고 말했다.

덕분에 ‘기본기’는 잘 닦여 있다. 그런데 누구나 짐작하는 바 사회주의 체제 아래 있는 탓에 자유롭게 자신의 가치관을

피력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 씨처럼 “김정일을 찬양하는 문학이 무슨 문학이냐”고 날 선 소리를 던지는 작가들도 없진 않지만, 한쪽엔 ‘아침분자’라 불리는 체제 순응적인 작가들이 많다. 실제로 1960년대에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체제 순응적인 ‘오체르크 문학’을 들고 나왔다. 이는 전형적 인물을 문학작품에 묘사하는 미담형상소설인데 1970년대 들어와서는 내부 작가들에게 문학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후 소설작품은 사회 모순과 갈등을 들고 나와야 한다며 사회 문제점을 지적한 소설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씨는 이를 소화해 낸 작가들을 “북한사회에 남은 마지막 양심”이라 표현했다. 북한 내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과거사를 들먹이며 ‘무임승차형’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비판한 중편소설 《향토》가 반향을 얻었고, 부정 인물을 빌어 섹스 장면을 처음 소설 속에 묘사한 홍석중 씨의 《늦새바람》도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담(용기) 있으니 썼지 아무나 못 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황진이》의 경우도 북한 현대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작품이 통과됐다는 것은 그럴 만한 민심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었다는 의미거든요. 북한 사람들은 작품 속의 어떠한 문학 장치도 다 읽어냅니다.”

문학적 형상화가 가능한 이유로 북한에는 소설이 발달해 있다. 최 씨 표현으로 하면 독자들은 작가들이 소설이란 옷을 입은 텍스트의 내피를 “귀신같이” 읽어내는 이들이다. 양심적인 작가들은 책을 통해서 자신의 힘을 발휘하기도 한다. 최씨는 때론 김정일 권력과 줄다리기를 하는 관계라며 그들에 대해 설명했다.

“김정일이 느슨해지면 작가들이 좋은 번역서나 자신들의 뜻이 담긴 책이 출판되어야 할 이유서를 써서 올립니다. 승인 사인이 내려오면 얼른 출판을 해냅니다. 반대로 김정일이 권력 유지를 위해 목조르기에 들어갈 때면 작가들은 힘이 없어집니다.”

## 2건의 심의체계 관문 건너야 출간된다

그렇다고 모든 소설이 출간될 수 있는 건 아니다. 편집과정은 남한과 비슷하지만 북한에선 자체 심의체계, 국가 심의체계라는 특수한 관문이 있다. 원고를 책으로 출간하고 싶은 저자는 출판사를 찾기 전에 우선 창작실의 1차 내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 원고를 접수한 출판사 역시 또 한 번의 국가 최종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론 심의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거세당하는’ 책들도 수없이 많다. 북한의 유명 번역작가 황경희 씨의 번역작 《고요한 돈》(고요한 돈강)은 소련의 유명한 노벨상 수상작임에도 이념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수정, 회수당한 바 있다. 그러나 책 출간 의욕이 강했던 역자는 1980년대 권력의 힘이 느슨해진 틈을 타 중앙당 신소과에 “이 세계적인 명작을 출판 안 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세계적인 명작’의 의미를 강조했다. 흥미롭게도 책은 출간 후 가히 폭발적인 독자반응을 얻었다. 최씨는 이런 드라마틱한 일화를 남긴 책이 한두 권이 아니라고 전한다.

북한의 번역은 번역 이유서를 제출, 통과되면 번역에 들어가는 시스템이다. 이때도 노임과 배급은 국가에서 지불한다. 최씨는 “대체로 세계적인 명작, 누가 봐도 무시 못할 명저라는 걸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번역서를 언급하던 최 씨는 북한의 경우 시장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으나 너무 성급하게 책을 번역하진 않는다며 남한의 번역물에 대한 지적도 빠뜨리지 않았다. 시장이 없는 이유인지는 몰라도 북한 번역물이 형상화 면에서 앞서 있고, 기계적인 번역이 아닌 질적인 번역을 하는 것 같다는 평가다.

“57곳의 출판사가 있지만 베스트셀러 집계는 없습니다. 유행하는 책이 있어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지 통계 같은 건 못 내지요. 서점이 각 구역마다 있지만 정말 좋은 책은 다 뒷골목으로 나옵니다. 서점에 있는 책은 사회, 교양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건 사실 진열에 불과합니다.”

## 박완서, 신경숙 등 북한을 향한 출판 콘텐츠의 주역으로 적당

북에 있을 때 최씨가 접한 남한의 텍스트는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 《장길산》 그리고 김지하, 박노해 시인의 시가 전부다. 또한 남한 작가 중에선 《토지》의 박경리 선생 이름을 자주 들어봤다. 주류 문인으로 통하는 최 씨의 정보가 이 정도이니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남한 출판정보는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과 남한을 잇는 관ข้าม 출판 콘텐츠를 고민하던 최씨는 박완서 그리고 신경숙 씨의 이름부터 꺼냈다. 소문이 자자한 작가들이라 그들의 책을 구입해 읽어봤는데 소문대로 유려한 문장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책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운명을 다뤄주는 소설이 최고입니다. 개인적으로 박완서 씨 소설의 경우는 북에서도 공감을 살 만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경숙의 《품금이 있던 자리》도 그런 작품 중 하나구요.”

한편 최씨는 남한 출판문화를 보며 느낀 점이 많다. 특히 ‘독자들이 열광한다 해서 해로운 사탕을 냈다 던져주기보단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시장을 사수하는 길을 생각해 보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유휴 수준에 그치는 ‘장난형’ 글을 많이 봤다며 “글 한 줄을 써도 자신이 가장 경외하는 이에게 쓰듯이 하라”는 북한 사람들의 자세도 본받을 만하지 않느냐고 했다.

“북한에선 책 한 권 있으면 읽고 또 읽고 하는데, 남한에선 책이란 게 하루에도 너무 많이 쏟아져서 그런지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너무 많으니 구미가 당기는 책이 뭔지도 모르겠고 선별이 어렵습니다. 가끔 문장 하나하나에도 심혈을 기울인 북한 책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취재 김철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